

석사학위논문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현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희진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for Civic
Education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김 현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희진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for Civic
Education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김현진

김현진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정 경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성 재 (인)

심 사 위 원 박 희 진 (인)

국 문 초 록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현 진

전통적으로 기록관의 핵심 역할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기록물 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기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록물 활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기록물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교육적 효과도 입증되었지만, 시민교육을 위한 기록물 활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을 파악하고,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를 종합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외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시민교육에서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와 시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조사하였다. 셋째, 국채보상운동 웹사이트와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국채보상운동의 배경과 기록물 보유 현황, 국채보상운

동 시민교육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및 교수자와 면담을 통해 시민교육의 운영 현황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넷째,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성 주제와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문헌 연구와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 및 전거데이터를 분석하여, 시민성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시민성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와 키워드를 선정하여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및 교수자,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자문을 받아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성 주제를 3개 영역, 6개의 상위 범주, 16개의 하위 범주로 재구성하였으며, 시민성 주제별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키워드를 범주화하였다. 이를 시각화하여 국채보상운동의 시민성 주제와 키워드를 통해 기록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시민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효용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록물 활용의 범위를 학교 밖 시민교육으로 확장하고, 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물 활용 방안은 시민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거나, 시민성 주제로 기록물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국채보상운동 기록, 시민성, 시민교육, 기록교육 프로그램, 기록정보서비스,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절차	3
II. 이론적 배경	5
2.1 시민교육	5
2.1.1 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	5
2.1.2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	7
2.2 기록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	16
2.2.1 기록교육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16
2.2.2 기록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19
2.3 선행연구	26
2.4 시사점	30
III.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31
3.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현황	31
3.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정보서비스	33
3.3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36
3.3.1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육 주제 및 내용	36
3.3.2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42
IV.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	51
4.1 시민성 주제 선정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키워드 범주화	51
4.1.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내용분석	51

4.1.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범주화	55
4.2 기록물 활용 방안 제안	67
V. 결 론	72
참 고 문 헌	74
부 록	79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국내 12개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주요 주제 영역	8
[표 2]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 모형	9
[표 3] Kniep(1987)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내용	10
[표 4] OXFAM(2015)의 세계시민교육 핵심 요소	11
[표 5] 유네스코(2015) 세계시민교육 내용	12
[표 6]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비교	13
[표 7]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15
[표 8] 검색 및 열람 서비스	17
[표 9] 부가가치 서비스	18
[표 10] 활용촉진 서비스	19
[표 1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원본 소장처별 보유 현황	31
[표 1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생산주체별 현황	32
[표 13]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주제	36
[표 14] 2020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37
[표 15] 2021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38
[표 16] 2022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39
[표 17] 2023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40
[표 18]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면담지 구조와 질문 내용	43
[표 19]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 대상 면담지 구조와 질문 내용	44
[표 20]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44
[표 21] 국채보상운동 내용분석 키워드 수집 예시	53
[표 2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1차 선정	55
[표 23]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2차 선정	58
[표 24]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범주화	62
[표 2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범주화	6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4
[그림 2]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관계	14
[그림 3] 4.16 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	21
[그림 4]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 공고	21
[그림 5] NARA의 Civics for All of Us 첫 화면	22
[그림 6] Student Programs 첫 화면	23
[그림 7] Student Webinars 첫 화면	23
[그림 8] Teacher Workshop 첫 화면	24
[그림 9] NCTR의 Education 서비스 첫 화면	25
[그림 10] Education Resources 첫 화면과 상세페이지	25
[그림 11]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념도	33
[그림 12]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34
[그림 13]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도구	34
[그림 14] 국채보상운동 일반용어 시소러스	35
[그림 15] 국채보상운동 인명 시소러스	35
[그림 16] 국채보상운동 지명 시소러스	36
[그림 17] 국채보상운동 시민아카데미 강의자료	41
[그림 18] 국채보상운동 시민성 네트워크 그래프 첫 화면(안)	68
[그림 19] 시민성 주제 페이지(안)	69
[그림 20] 시민활동 주제에 대한 네트워크 그래프(안)	69
[그림 21]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결과 예시(안)	70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기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집과 보존이 아닌 활용에 있다. 기록은 과거의 사실을 보존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록물 활용과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건 외, 2013; 김태훈, 2017; 김희정, 2008; 차준호, 2011).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가가치서비스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기록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강주연 외, 2015; 배나운 외, 2023; 송미애, 이지원, 2023; 심갑용 외, 2015).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기록물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도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사회교과의 교육에 집중되었다(김태훈, 2017). 일부 기록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시민교육에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기록물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기록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 및 취업 불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의 퇴보 등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와 시민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다양한 사회 문제 속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민교육은 개인이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

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배려와 존중, 협력과 소통, 공동체 의식 등에 기반하며, 비판적 사고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한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성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교현장과 교과과정에 한정된 기록물 활용의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교육에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민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1907년 일본의 경제주권 침탈에 대응하여 전 국민이 참여한 경제주권 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 운동은 최초의 시민운동이자, 여성·학생운동, 언론 캠페인으로서 뛰어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김지옥, 2017). 이러한 점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시민성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에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내용분석을 통해 시민성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시민교육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별로 기록물을 범주화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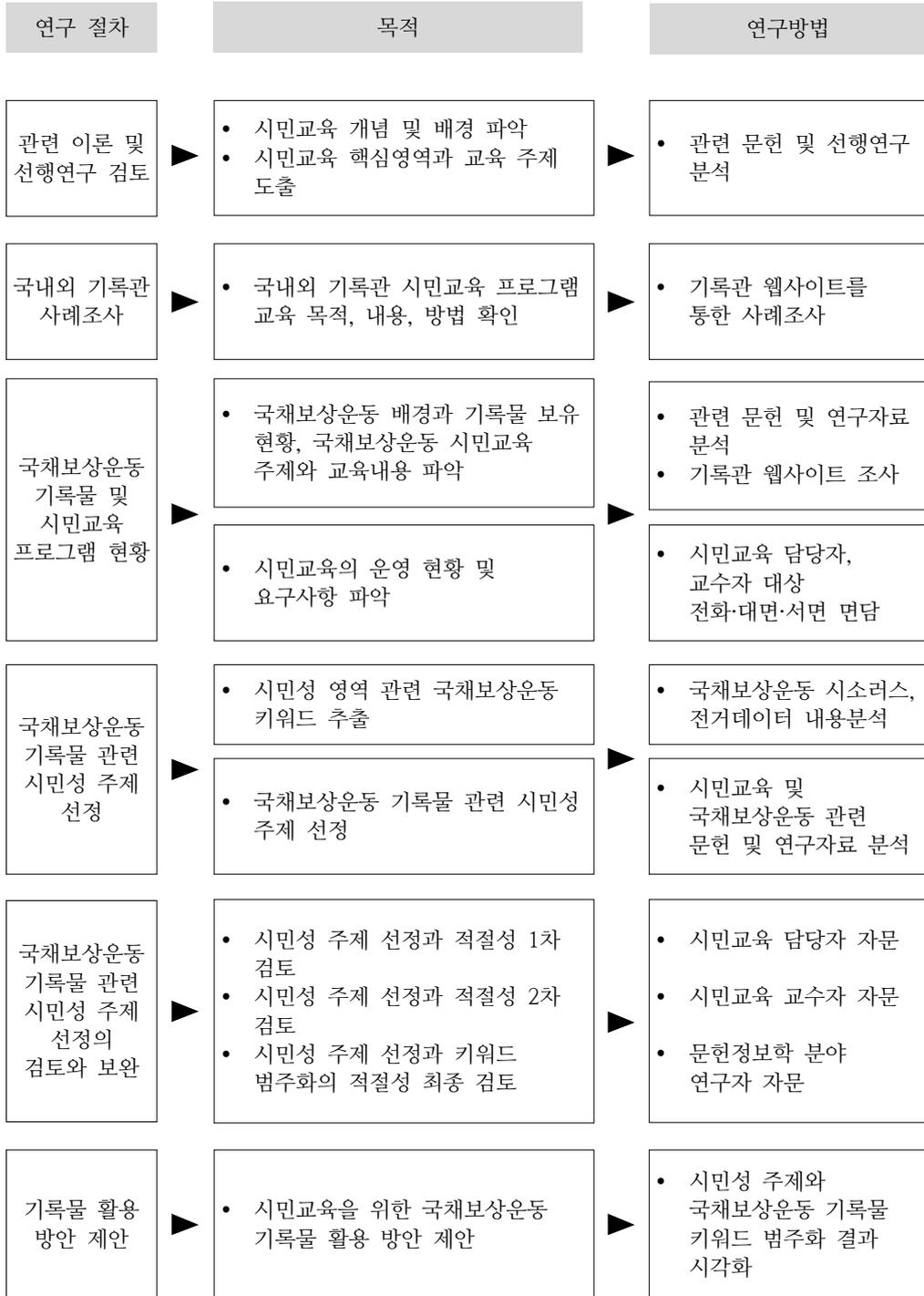
첫째, 시민교육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국내외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관 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채보상운동 기록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자 웹사이트 조사, 문헌연구, 전화·대면·서면 면담을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배경과 기록물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총서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시민교육의 주제와 교육내용을 확인하였다.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전화·대면 면담 및 서면 면담을 실시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교육방법과 내용, 성과와 개선방향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넷째,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와 전거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를 시민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성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시민교육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 중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시민성 주제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자문을, 시민교육 교수자를 대상으로 2차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된 시민성 주제별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범주화하고,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성 주제를 3개 영역, 6개의 상위 범주, 16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수정·보완된 시민성 주제에 맞추어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다시 범주화하였으며, 키워드 범주화 결과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2.1 시민교육

본 절에서는 시민교육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의 정의, 목적, 교육 주제와 핵심영역 등 필수 구성요소를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2.1.1 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

시민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현대 민주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다(이관춘, 2011). 시민성의 개념 역시 시민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단일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된다. 시민성은 시민이란 지위에 요구되는 의식 및 자질로,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지도와 안내, 공동체 내 상호작용 및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이은미, 진성미, 2014).

시민교육은 이처럼 개인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민이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지역, 국가, 세계 등)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이은미, 진성미, 2014).

국내 시민교육은 크게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비민주적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시민의 역할과 참여,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 개혁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책임을 가르치는 내용이 사회과 교육에 포함되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오혜재, 2019).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적인 법적 근거는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으로 제2조 ‘교육이념’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적 참여와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게 되며, 나아가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서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시민교육은 20세기 중후반 세계화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수립한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5월 인천 세계교육포럼 의제로 채택되고, 2015년 9월 유엔 총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성과가 결정적 요인이 되어, 2016년부터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이 등장하였다(김남순, 박환보, 유혜영, 2017).

세계시민교육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을 향상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성 존중, 협력, 의사소통 등의 역량에 기반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설규주, 2021; 최지혜, 이숙향, 2022). 2016년에는 교육부가 세계시민교육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세계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국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할 필요성을 밝혔다.

세계시민교육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유엔의 교육 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각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5월 전 세계 범용 교수·학습 지침서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유네스코, 2015)를 발간하였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한국 교육의 맥락에 맞게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를 한국판 해제본으로 출판하였다.

시민교육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며, 지향하는 시민성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이은미, 진성미, 2014). 국내 시민교육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국가 중심의 ‘국민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 주체가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중요시하는 ‘시민교육’의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에 따라 세계적 패러다임에서 교육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의제 채택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 국내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2.1.2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

본 절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를 정리하였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교육부, 2018)”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으로 제시하였다. 도·특별시·광역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주제영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국내 12개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주요 주제 영역

주제 영역	내용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제도 이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정치제도 등
국가 및 역사의식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등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참여 및 정치제도 이해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 방법 등
공유 가치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시대적 가치 및 이슈	인권, 환경, 양성평등, 다문화, 미디어, 기후변화, 평화, 통일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또한 이병준(2008)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을 개인 차원의 1단계, 시민사회 차원의 2단계, 민주주의 차원의 3단계 역량으로 나누어 개인, 사회, 세계로 점점 확대되는 포용적인 시민성을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개인 차원의 1단계 핵심역량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조절 역량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민사회 차원의 2단계 시민성 역량은 평등과 존중, 준법과 권리의식, 국가의식과 역사의식 등 시민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들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차원의 3단계 민주주의 역량에서는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역량과 같은 세계시민성과 다양성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시민활동 등의 역량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표 2]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 모형

1단계 핵심 역량 Key Competency(개인)			
1	자율적인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감, 자기 조절 역량, 인내력, 독창력, 결정 능력, 유연성, 변화를 즐기기, 기회를 만들어 낼 줄 아는 자신감 	
2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 능력, 책임감, 팀워크·협력 능력, 분쟁·중재 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 처리 능력 	
3	언어·공학 기술 등 도구의 포괄적 사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능력, 계획 능력, 조직력, 문제 해결력, 반성(반추)능력, 문맥적 사고력, 조작 기술, 혁신의 의지, 분석 역량, 판단 능력·비판력 	
2단계 시민성 역량 Citizenship Competency(시민사회)			
1	국가 정체성	국가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국심, 충성심, 올바른 국가관(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역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성, 올바른 역사의식,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2	권리와 책임의식	준법 (규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의무감, 준법정신, 순종(순응), 엄격함, 권위 존중, 기초 법지식, 공적 의무 충실, 사회적 책임
		도덕성, 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감, 투명성, 도덕성, 정직성
		권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 인식, 권리 주장, 권리 존중
3	신뢰와 가치	신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 공익성, 상호 신뢰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회 균등, 공정성·공평성, 독점 반대, 소수자의 권리 존중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 인권 존중, 공감
3단계 민주주의 역량 Democratic Competency(민주주의)			
1	다양성 존중	다원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차이 인정, 어울림·조화
		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심, 용서
2	참여의식	정치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선거 참여, 투쟁, 정치 참여, 정치의식, 저항정신, 사회적 관심, NGO 활동
		시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 나눔, 봉사
		미디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세스, 비판적 모니터링, 미디어 활용
3	세계시민성	민주적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적 합리성, 의사소통, 비판 능력, 갈등 조정 능력, 타인의 의견 경청, 자율적 사고, 토론 능력, 조정 능력
		다문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존, 다문화 존중
		세계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적 담론, 지속 가능 발전 역량

〈출처: 이병준(2008)에서 재인용〉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주제 및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Kniep(1987)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개념적, 현상학적, 지속적 문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개념적 주제로는 상호의존, 변화, 문화, 희소성, 갈등을 현상학적 주제로는 행위자와 구성요소, 주요 사건과 관련된 내용, 지속적 문제 주제로는 평화와 안전, 국가적·국제적 발전, 환경문제, 인간의 권리 등을 제시하였다(허영선, 2020, [표 3] 참조).

[표 3] Kniep(1987)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내용

주요 주제	주제	관련 개념
개념적 주제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공동체, 사회, 정부, 단체, 체제, 인간관계, 상호 작용
	변화(Change)	• 원인과 결과, 적응, 성장, 발전, 진화, 시대, 혁명
	문화(Culture)	• 언어, 다양성, 규범, 역할, 가치, 미학, 시간, 공간
	희소성(Scarcity)	• 자원, 특화, 갈등, 개발, 이동, 기회비용, 정책
현상학적 주제	행위자와 구성요소	• 주요인물, 종교·문화적 집단, 조직, 기관, 국가
	주요 사건	• 역사적·현대사적 사건들
지속적 문제 주제	평화와 안전	• 동서관계, 테러리즘, 식민지주의, 군비경쟁,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국가적·국제적 발전	• 과잉인구, 남북문제, 기아와 빈곤, 적절한 기술, 국제적 부채 위기
	환경문제	• 공해, 열대 우림의 감소, 산성비, 핵폐기물 처리, 어업권의 유지
	인간의 권리	• 인종차별, 종교적 학대, 정치적 감금, 망명

<출처: 허영선(2020)에서 재인용>

영국의 NGO 기구인 OXFAM(2015)은 세계시민교육을 상호의존적이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OXFAM은 학습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계시민성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요소는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식 및 이해’, 공공의 덕목에 대한 올바른 ‘가치 및 태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쟁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의사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표 4] 참조).

[표 4] OXFAM(2015)의 세계시민교육 핵심 요소

지식 및 이해	가치 및 태도	기술적 능력
사회 정의와 평등	정체성과 자존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정체성과 다양성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	공감능력
세계화와 상호의존	인간과 인권에 대한 존중	자아인식과 성찰
지속 가능한 발전	다양성의 가치	의사소통 능력
평화와 갈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헌신	협력과 갈등 해결
인권	참여와 통합에 대한 헌신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
권력과 통치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신념	잘 알고 반영하는 행동

〈출처: 허영선(2020)에서 재인용〉

유네스코(2015)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과 전 세계적인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그동안 논의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전 세계 범용 교수·학습 지침서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유네스코, 2015)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를 통해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개념과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실정에 맞게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교육을 인지, 사회·정서, 행동적 영역별로 정의하며, 학습 목표와 학습자 특성별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유네스코(2015) 세계시민교육 내용

구분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복잡성과 상호연계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수행, 실천 및 참여 등 가치와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행위를 강조
학습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의 이슈와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 •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기반한 가치와 책임을 공유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감, 연대의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를 추구 • 사회적 참여와 실천 역량 강화
학습자 특성	<p>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p>	<p>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p>	<p>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차원의 체계, 구조 및 이슈를 이해 • 비판적 탐구와 분석 능력을 발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성과 소속감을 이해 •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사회적 책무를 실천 • 평화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공동체 상호작용과 연계 이슈 •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상호연계 방식 •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참여하고 실천하기

인지적 영역은 세계의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의미하며, 지역·국가·세계차원에서 공동체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영역은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능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며,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역은 행위, 수행, 실천 및 참여와 같이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영역이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지식,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며, 주로 행위를 강조한다. 학습자는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학습목표와 교육내용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행동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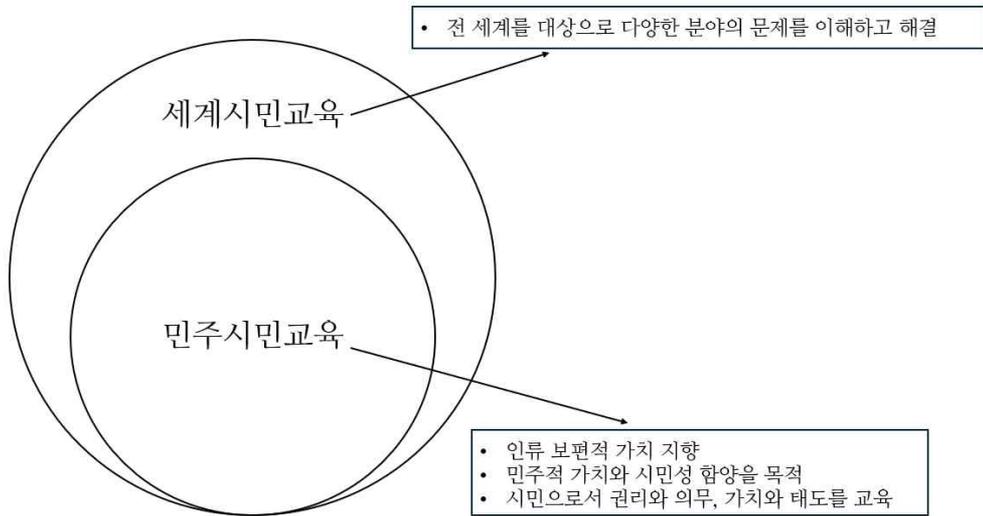
이처럼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단체와 학자, 시기마다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주제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권, 평화, 환경, 문화다양성 존중, 세계평화 구현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2015)은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교육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주목한다([표 6] 참조).

[표 6]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비교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단일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시민권과 민주주의에 초점 • 정치적 참여, 법과 제도의 이해, 지역사회 참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적 차원의 문제(환경, 지속 가능발전 등)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 • 다문화 존중, 글로벌 연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강조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며,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주체 양성을 지향 • 인권, 평화, 정의, 환경, 다양성 존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가치와 태도에 대해 교육 •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책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지향 	

국내에서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양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 이슈와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 함양을 공동의 목표로 삼으며, 궁극적으로 인권, 평화, 정의, 다양성 존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두 개념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관계

세계시민교육은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등 여러 교육을 통합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을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유네스코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유네스코, 2015)에 제시된 학습 주제와 학습목표를 참고하여 시민교육의 핵심영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핵심영역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시민교육 주제를 [표 7]에 종합 정리하였다.

[표 7]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연구			
			Kniep (1987)	이병준 (2008)	OXFAM (2015)	유네스코 (2015)
인지적 영역	미디어 역량	비판적 모니터링, 미디어 문해력, 액세스		○		○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적 합리성, 의사사통, 비판 능력, 갈등 조정 능력, 타인의 의견 경청, 자율적 사고, 토론 능력		○	○	○
	세계 시민의식	통합적 담론, 지속 가능 발전 역량	○	○	○	○
	국가의식	애국심, 충성심, 올바른 국가관		○		
	역사의식	정체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 역사의식		○		
사회·정서적 영역	다원주의	다양성·차이 인정, 어울림·조화	○	○	○	○
	관용	이해심, 용서		○		○
	다문화 역량	공존, 다문화 존중	○	○	○	○
	도덕성, 양심	정의감, 투명성, 도덕성, 정직성		○		○
	권리의식	권리 인식, 권리주장, 권리 존중		○	○	○
	신뢰감	공공성, 공익성, 상호 신뢰		○		○
	평등	기회 균등, 공정성·공평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		○	○	○
존중	배려, 인권 존중, 공감		○	○	○	
행동적 영역	정치적 활동	투표·선거 참여, 투쟁, 정치 참여, 정치의식, 저항정신, 사회적 관심, NGO 활동		○		○
	시민활동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 나눔, 봉사	○	○		○
	준법 (규범준수)	책임감, 의무감, 준법정신, 권위 존중, 공적 의무, 사회적 책임, 사회정의		○		○

2.2 기록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본 절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와 기록관의 교육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 기록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와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2.2.1 기록교육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오늘날 기록을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활용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기록의 활용을 지원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록정보서비스란 이용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기록물과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행위이다(Pugh, 2005).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정보서비스는 단순히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의 가치와 유용성을 홍보하고 기록을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활동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록정보서비스의 변화를 가속화하였으며, 서비스의 대상은 기록관의 현재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된 기록 제공, 검색 도구 지원, 전시, 교육 콘텐츠 개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24).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을 제공하고 가공하여 잠재적 이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김순희, 2010).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제공하며, 실제 기록을 검색하고 열람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표 8] 참조). 특히, 기록관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가 기록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다양한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통해 온라인 열람을 지원하거나 원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점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8]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검색도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기록 목록 • 전거파일 • 색인(주제, 인명, 지명, 사건) • 등록부 • 통합 목록 • 시소러스(주제어, 기능어) • 인벤토리 • 검색 가이드
검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 통합 검색(소장처 안내) • 전담 창구(참고 면담 및 검색)
열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열람 • 서고 외 반출 • 방문열람 예약신청 • 온라인 열람(기록 원문 디지털화) • 사본제공 서비스 • 온라인 사본 신청

〈출처: 한국기록관리학회(2024)〉

부가가치 서비스란 기록을 가공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전시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김순희, 2010). 이는 기록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록관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설문원, 2008). 부가가치 서비스는 크게 전시, 기록콘텐츠 개발,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표 9] 참조),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는 기록관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유용한 서비스이다.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물을 상설전시나 특정 주제별·유형별 기획 전시 형태로 제공하면 누구나 쉽게 기록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에 더해 온라인 공간에서도 전시를 제공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설문원, 2008).

기록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록 콘텐츠 개발과 이용자 교육 서비스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록 콘텐츠 개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재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록 콘텐츠 개발에서 기록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와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 교육 서비스는 기록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내용과 정보를 판단하여, 직접 기록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기록관 이용 오리엔테이션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기록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능력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금재은, 2016). 또한, 학습지원 및 교수지원 서비스에도 기록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안을 제작하거나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 지원 서비스는 각 분야 전문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기록물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소장 기록물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해 기록 활용의 관점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적합한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표 9] 부가가치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온라인, 오프라인) • 특별전시(주제별, 유형별)
기록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국정 분야 및 주제별 콘텐츠) • 교육용 콘텐츠
이용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교사 워크숍, 기록 문화학교, 이용교육 등) • 강좌, 세미나 • 학습지원 서비스(e-Learning) • 교수지원 서비스(교수안 제작)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 서비스(기록 연구활동 지원) • 전문가 서비스(전문 해설서 및 가이드) • 법률지원 서비스(법률상담)

〈출처: 한국기록관리학회(2024)〉

활용촉진 서비스는 기록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견학, 출판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으로 운영된다([표 10] 참조). 이는 기록물을 활용하여 기록관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견학 제공을 통해 기록관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서비스이다.

[표 10] 활용촉진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자 발간 및 출판(홍보물, 연보, 해제집, 번역집, 학술서, 전문서) 매체 홍보(언론 인터뷰) 및 마케팅 기록공동체 운영(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모니터 집단)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대상별 견학(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기록관리 전공자 및 실무자 대상, 외국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백일장, 세계 기록의 날, 사진 전시회) 기념품 배포

〈출처: 한국기록관리학회(2024)〉

기록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기록관의 교육서비스를 정의하면, 기록관 이용자들이 기록을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록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활용하여 학생이나 교사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관 교육서비스는 기록정보서비스의 부가가치 서비스에 포함된다.

2.2.2 기록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본 항에서는 국내외 기록관의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기록관에서 소장한 기록물이 시민교육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기록관 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최근 5년(2019년 ~ 2024년) 동안 기록관에서 진행된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 사례는 ‘시민 아카데미’, ‘시민교육 프로그램’, 해외 사례는 ‘Civic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을 검색어로 삼아 공식 홈페이지와 홍보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국내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국내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로 4.16 기억저장소의 ‘단원고 4.16 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5.18 기념재단의 ‘우리동네 오월학교’가 있다. 4.16 기억저장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의 기록을 관리하는 민간기록관리기관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고 있다. 4.16 기록물은 단원고등학교의 공간 기록, 희생자 관련 기록, 유가족 활동 기록, 생존자와 유가족의 구술증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극의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위로와 책임을 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교육 관점에서 4.16 기록물은 민주사회에서 책임과 정의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며,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통해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의미를 둔다.

4.16 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4.16 기억저장소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참사를 기록의 관점에서 학습하며, 안전사회 구축과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그림 3] 참조). 학습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안전문화 정착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배양하는 교육을 받는다. 특히, 희생자와 생존자의 기록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4.16 기억교실 방문을 통해 세월호 사건 당시와 이후의 기록물(영상, 사진, 유가족 증언 등)을 접하고, 생존자, 유가족, 전문가의 강연 및 현장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5.18 기념재단의 ‘우리동네 오월학교’가 있다. 5.18 기념재단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희생자 추모,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 계승, 시민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5.18 기록물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록물이며 201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산이다. 시민교육 관점에서 5.18 기록물은 시민들의 연대와

시민사회의 참여, 과거의 역사를 통한 성찰과 민주주의·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5.18 기념재단 우리동네 오월학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역사회에 전달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교육 전문 활동단체 및 동네책방과 연계하여 5.18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대상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영기관에서 강연, 워크숍, 공연, 전시, 캠페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3] 4.16 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

2) 해외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해외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로는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Civics for All of Us’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문해력(Civic Literacy)과 참여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시민 문해력(Civic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3.16.)

작성자: 518기념재단 | 작성일: 2023.03.02 13:10:03 | 조회: 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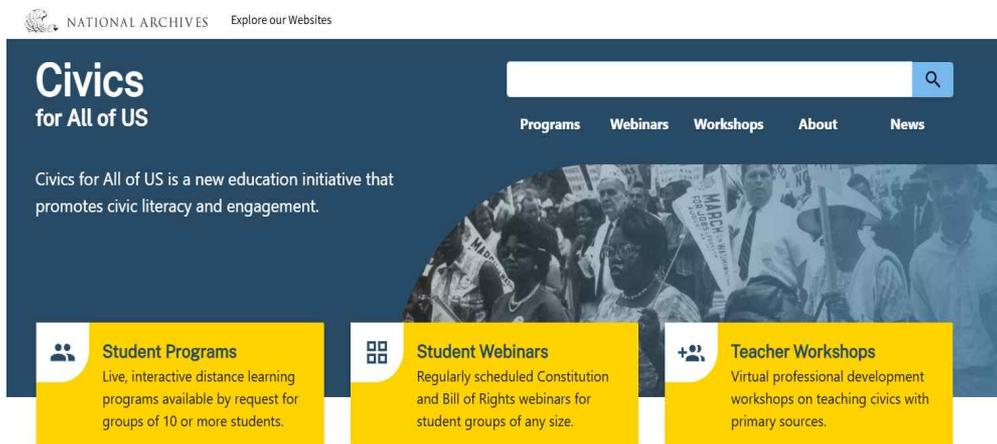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 공고문

-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
 - 일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대상별 시민참여형 오월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 개요
 - 사업 명: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
 - 사업내용: 청소년, 교사, 시민 대상 5·18교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제안 및 운영
 - ※ 운영방법: 강연, 워크숍, 공연, 전시, 캠페인 등
 - 사업기간: 2023. 4. ~ 10. (당해년도 사업)
 - 신청대상: 전국 교육·시민단체(비영리), 동네책방, 언론사
 - 대상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결정(8개 내외 단체)
 - 지원예산: 사업당 2,000천원~4,000천원

[그림 4] 우리동네 오월학교 프로그램 공모 공고

Literacy)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한 능력으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공동체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LiteracyNowBurnaby, 2024).

‘Civics for All of Us’는 주로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등 헌법 및 역사적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기록물들은 시민교육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 강화,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 ‘Civics for All of Us’의 목적인 시민 문해력(Civic Literacy) 향상은 공동체 문제 해결, 민주주의 유지, 시민의 권리와 책임 등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학생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NARA의 주요 기록물과 1차 사료를 교육 도구로 사용하고, 온라인 및 대면 학습을 제공한다. 첫 화면에서는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Student Programs’와 ‘Student Webinars’, 그리고 교사 대상 워크숍인 ‘Teachers Workshops’가 제공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NARA의 Civics for All of Us 첫 화면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과 시민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권리장전과 같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The Bill of Rights protects You”,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와 같은 다양한 교육 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 학습과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통한 비판적 사고 활동으로 진행된다([그림 6] 참조). 또한 학년별 웨비나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주제와 학습 방식이 제공되며, 헌법과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6] Student Programs 첫 화면



[그림 7] Student Webinars 첫 화면

교사 워크숍은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시민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차 자료를 활용한 시민교육의 방법론을 강의한다. 헌법과 권리장전, 역사적 사건과 시민권 운동, 선거와 정치참여, 수정헌법 등 역사적 기록물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기록물과 사례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역사와 시민성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상이 되는 기록물들은 민주주의, 시민권, 투표와 정치 참여,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그림 8]참조).



[그림 8] Teacher Workshop 첫 화면

캐나다의 국립 진실 및 화해 센터(National Centre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이하 NCTR)는 19세기 후반 캐나다 정부와 교회가 원주민 아동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 원주민 문화를 억압하고 동화하려는 정책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NCTR, 2024). 해당 사건을 통해 원주민 아동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잃었으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가 기숙학교 생존자와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TRC)가 설립되었다. 이후 생존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정부 주도로 자행된 문화적 집단학살의 화해를 위한 권고안으로 국립 진실 및 화해 센터(NCTR)가 설립되었다. NCTR의 기록은 생존자의 증언, 정부 및 교회 기록,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의 자료, 사진, 영상 및 기타 시청각 자료로 구성된다. 시민교육 관점에서 NCTR의 기록은 과거의 진실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교훈을 전달하며, 사회적 정의와 화해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동체 간 이해 증진, 정의와 평등,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의 가치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NCTR은 과거 캐나다 원주민 역사 및 기숙학교 제도와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고 캐나다 사회 전반에서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며, 지속적인 화해와 치유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NCTR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NCTR의 Education 서비스 첫 화면

NCTR은 화해의 방안으로 교육을 내세우며 ‘Teaching Resources’를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기숙학교와 관련된 자료와 교수안을 제공하여 학교현장에서 진실과 화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기록으로는 문서와 생존자의 구술 기록, 다큐멘터리 및 시각 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교육대상의 연령에 따라 자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록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원주민 기숙학교 사건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Education Resources 첫 화면과 상세페이지

‘Education Resources’에서는 300개 이상의 영어 자료와 100개 이상의 프랑스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준에 따라 앱, 도서, 게임, 영화, 수업계획서, 교사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NCTR의 기록물은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시스템의 진실을 보존하고 교육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외 기록관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시민교육 관점에서 기록관들의 소장 기록이 가지는 의미와 시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에서 살펴본 기록관의 기록은 시민교육 관점에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 공동체 등의 의미를 가지며,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기록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편적 가치 양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양성, 민주주의 가치 이해,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 등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적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교육에 활용되는 기록들은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권, 투표와 정치참여, 인권, 정의, 평등, 공동체,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의 의미를 가지며,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시민적 권리와 책임의식 향상,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민주적 과정을 학습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배경과 개념,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와 관련된 연구와 기록교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 연구는 사회학, 교육학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 시민교육 간의 상관관계, 개념 고찰 및 확장,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은미, 진성미(2014)는 세계화, 민주주의의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교육 경계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연구에서 논의된 시민과 시민성, 시민교육의 개념을 고찰하고 시민교육 확장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이 방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시민,

시민성, 시민교육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맥락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은 소속감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교육을 통해 시민성이라는 의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된다. 또한 기존의 시민교육의 대상과 내용, 교육방식의 확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시민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전 연령의 시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강의를 통한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한 문제 제기식 학습방법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런 시민교육 경계 확장을 위해 평생교육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의 이념과 지향점, 전문성과 인프라가 기존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확장된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 ‘시민교육의 경계 확장 및 활성화에 따른 후속문제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록 큰 틀에서 시민교육의 의미와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교육 중요성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오혜재(2019)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비교·분석 및 교사 인식·실천 현황 연구를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태동과 변천과정, 각 시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비교하고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시민’이라는 단어로 연결과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 내에서 시민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시민교육 핵심영역과 교육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이해주(2011)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를 통해 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내용과 하위요소, 시민교육의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시민성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며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 모형을 통해 시민교육의 핵심내용 및 시민교육의 기본적 요소를 제안하였다. 시민교육 방법과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방법, 교

육 방법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 시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허영선(2020)은 중학교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에 학습 요소를 분석하고 세계시민교육을 개발·실행·평가하여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공통된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가정과교육과정 학습 요소와 연계시키는 방법은 타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록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차준호, 2011; 김건 외, 2013; 김솔, 2013; 강주연 외, 2015; 배나운 외, 2023; 송미애, 이지원, 2023).

차준호(2011)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록관에서 개발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인 ‘자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용 현황 및 활용성을 조사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상이 되는 ‘자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콘텐츠는 국내 기록관 중 최초로 중등 역사교육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콘텐츠로 사진과 음성기록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 문서·사진·동영상·구술기록을 통한 학습을 제공한다. 하지만 교과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학생 대상 콘텐츠로 난이도가 높아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기록정보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안하였다. 기록관 소장 자료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여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록정보콘텐츠의 교육적 가치를 입증하며, 기록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건 외(2013)는 다중지능이론과 자원기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아동·청소년의 다중지능 발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통령기록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담당자를 면담하였으며, 미국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능력 신장,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인식 및 활용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현장에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의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솔(2013)은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과정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초등학교 사회, 도덕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기록물 활용이 가능한 단원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적 가치가 높은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기록물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강주연(2015)은 세계기록유산인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인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의 인식 제고와 5.18 기록물의 활용촉진, 다양한 교과영역과 연계가 가능한 PBL모형을 통해 학습자에게 심도있는 학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배나운, 이수현, 오효정(2023)은 집단 탐구 모형(Group Investigation: GI)과 과제 분담 학습모형(JIGSAW)을 기록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으로 채택하여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기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는 세계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훈민정음(해례본)”, “난중일기”,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을 활용하였다. 이후 실제 학습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교육 효과인 기록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를 살펴보았다.

송미애, 이지원(2023)은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관심 증진 및 교육과정과 기록물의 연계 효과를 위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도서관협력수업을 설계하였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도서관협력수업 교수학습안 제시를 통해 학생들이 기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개념과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2.4 시사점

기록 보존의 목적이 활용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록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송미애, 이지원, 202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기록물이 교과과정에 기반하여 주로 수업시간에 활용되었고, 역사나 사회과 수업에서 1차 자료로 보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기록물의 교육적 활용의 범위를 학교 현장과 교과과정을 넘어 시민교육으로 확대하여,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교육을 위한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에서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기록물이 가지는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기록물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법이나 활용 수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외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기록물 또한 인권,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의, 평화, 공동체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었다. 해외 사례는 시민교육을 위해 이용자 수준에 맞춘 기록물을 제공하고, 특정 시민교육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용 및 교사용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제공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교수학습안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시민교육에서 기록은 시민교육의 주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록물을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뛰어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물을 활용한 시민교육은 기록관 교육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 등 기록정보서비스의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내용분석을 통해 시민교육의 핵심 영역과 교육 주제에 맞추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범주화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웹사이트 조사, 문헌연구, 전화·대면·서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배경과 기록물 보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강의자료와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시민교육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을 검토하였다. 교육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전화·대면 면담, 교수자와의 서면 면담을 통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과 내용, 방법, 성과, 개선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3.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현황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1907년 일본의 경제주권 침탈에 맞서 국민적 모금운동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다. ‘나눔과 책임’ 정신이라는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김지옥, 20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총 2,475건으로, 여러 기관과 개인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다. 주요 소장처는 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등이며, 일부 개인 소장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당시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반영하며, 기관별 자료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국면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장처별 구체적인 기록물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표 1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원본 소장처별 보유 현황 (단위: 건)

소장처	기록물 건수	소장처	기록물 건수
개인	1	독립기념관	3
고려대학교 도서관	1	서울대 도서관	454
국가기록원	4	연세대 학술정보원	378
국립고궁박물관	639	한국국학진흥원	52
국사편찬위원회	117	한국금융사박물관	8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5	한국연구원	791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	합계	2,475

〈출처: 김경남(2022)〉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475건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확산에 영향을 준 개인 작성 기록물, 통감부의 동향 파악 및 탄압 기록물, 그리고 언론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이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f)([표 12] 참조). 발기문, 취지문, 회문 등 개인이 작성한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의 발단을 알리고 전국적 확산을 이끈 중요한 사료이다. 이들 기록물은 지역 단체의 운영 규약 및 지역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의 성공을 저지하기 위해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인물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등 다양한 방해공작을 자행했다.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 명령서, 공판 기록 등으로 남아있다. 언론은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사들은 취지서와 명단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특히 여성, 소작인, 백정, 기생 등 사회적 약자의 의연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f).

[표 1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생산주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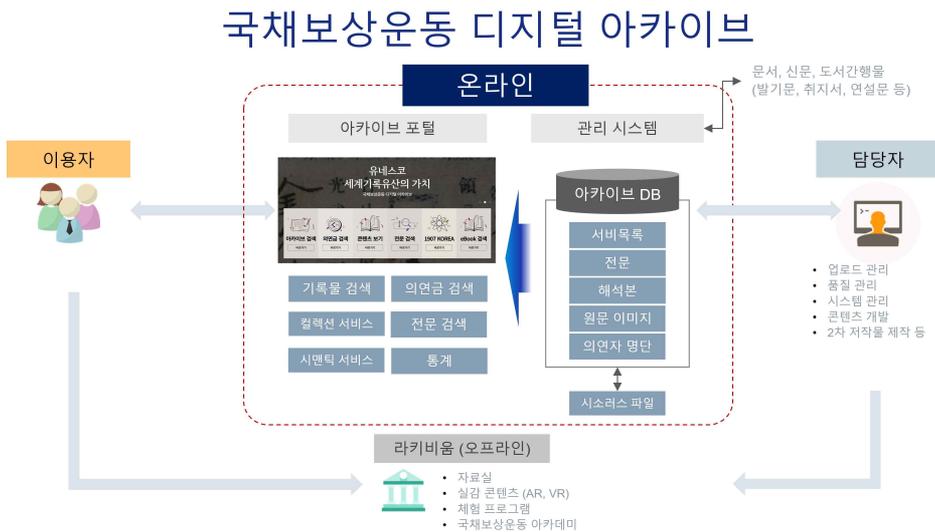
생산주체	구분	유형	생산시기(년)	수량(건)
개인	국채보상운동 발단 및 전개	발기문, 취지문 등	1907~1908	12
	국채보상운동 확산 및 파급	회문, 통문 등	1907~1909	77
통감부	국채보상운동 동향 파악 및 탄압	공판 기록, 보고서 등	1907~1909	122
언론	국채보상운동 확산	논설, 광고, 관련 기사, 잡지 등	1907~1910	2,264
소계				2,475

〈출처: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02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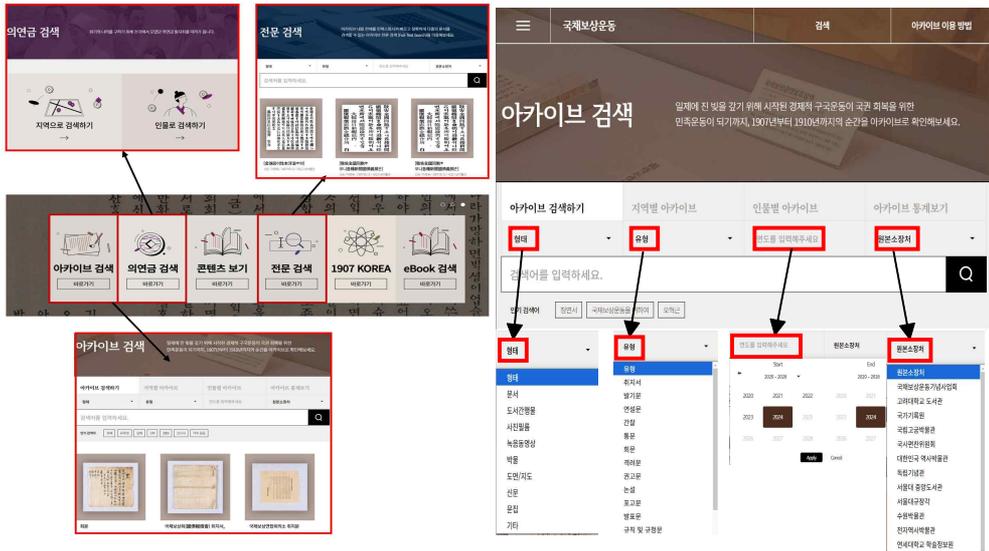
3.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정보서비스

2019년 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알리고, 기록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이어 2020년에는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를 개발하여 기록물 활용을 더욱 촉진했다(도슬기, 박희진, 2023).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는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를 중심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475건의 기록물과 미등재 기록물을 포함한 총 4,124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2024년 11월 기준).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포털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1] 참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기록물 원문 이미지, 의연자 명단, 검색도구인 시소러스(일반용어, 지명, 인명)가 포함되어 있다. 아카이브 포털은 의연금 검색, 콘텐츠 보기, 전문 검색, eBook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카이브 검색에서는 기록물의 형태, 유형, 생산연도, 원본 소장처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한글·영문화 사업을 통해 원문과 한·영 해석본을 상세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3]참조).



[그림 11]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념도
 <출처: 도슬기, 박희진, 2023>



[그림 12]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그림 13]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도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시소러스는 기념사업회가 2020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일반주제 및 단체명, 지명, 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소러스는 일반주제 및 단체명 557개, 지명 634개, 인명 264개의 디스크립터로 구성된 Excel 파일로 관리되고 있다(한상은, 도슬기, 2024). 시소러스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475건의 기록물과 국채보상운동 관련 논문 92건, 단행본 14권, 그리고 추가로 발굴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1,674건에 등장하는 단어를 언어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고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0). 아래는 일반주제 및 단체명 시소러스에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라는 키워드의 예시이다([그림 14] 참조). 일반주제 및 단체명 시소러스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의미’와 ‘특성’, 관련된 문서를 보여주는 ‘출처’와 등장한 기록물 유형인 ‘문서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인명 시소러스는 일반주제 및 단체명, 지명 시소러스와 달리 상위어, 하위어가 아닌 인물의 생몰년과 거주지, 이력, 국채보상운동 참여 내역, 성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의미	1907년에 한규설(韓圭高)·양기탁(梁起鐸) 등이 ‘대한매일신보사’에 설치한 조직. 국채 보상 지원금을 보관하고 국채보상 운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RT	경성상업회의소, 국채보상검사소, 국채보상금모집, 국채보상의연금 등
BT	총합소
NT	국채보상지원금
USE	-
UF	수금소, 국채보상합소, 경성지원금총합소, 경성총합소
한자어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
특성	기관단체명
출처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통감부문서
문서종류	영수증, 청구서, 신문기사, 보고문, 기사, 규칙 및 규정, 공문서 등
국채보상번호	0006, 0171, 0129, 0448, 0473, 0568, 0715, 0771, 0819 포함 총 274건

[그림 14] 국채보상운동 일반용어 시소러스 - 기관단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서상돈

한자명	徐相敦
호	-
자	-
이칭	아우구시티노
출생일	1850.10.17
사망일	1913.06.30
거주지	대구
이력	광문사 부사장
국채보상운동참여	국채보상운동 발기인, 대구단연상채소 회원
국적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애족장
성격	사업가
국채보상번호	0002, 0005, 0086, 0090, 0196 포함 총 38건

[그림 15] 국채보상운동 인명 시소러스 - 인명 ‘서상돈’

한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인 ‘대구’와 관련된 사례이다. 아래 [그림 16]와 같이 지명 시소러스는 일반주제 및 단체명 시소러스보다 비교적 단순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채보상번호를 통해 관련 기록물 번호와 연결된다.

대구	UF 대구부, 대구군, 대구읍, 달성
	BT1 경상북도
	NT 남일동
	RT 현풍
	한자어 大丘
국채보상번호	0002, 0015, 0047, 0067, 0072 포함 총 47건

[그림 16] 국채보상운동 지명 시소러스 - 지명 '대구'

3.3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3.3.1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육 주제 및 내용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채보상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술, 교육,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구·경북지역의 국권수호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f).

국채보상운동 웹사이트와 강의자료를 분석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서면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회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연도별 강의 진행 횟수, 주차별 강의 내용과 교육 목적을 분석하였다. 2020년부터 운영된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표 13]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주제

연도	주제
2020년	대구독립운동사
2021년	‘나눔과 책임’ 정신을 실천한 선각자에 관한 연구
202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과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의 이해
2023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 연구

2020년, 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여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를 처음 개설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개월 동안 강의 14회와 현장답사 1회로 구성되었으며, 강사진은 한국 근대사, 동양근대사 등 국채보상운동 및 독립운동 관련된 연구자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교육 주제는 대구독립운동사로, 대구와 주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구 시민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하고 나아가 국채보상운동의 시대정신인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14] 2020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회차	주제
1회	취지서로 본 국채보상운동
2회	국채보상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3회	유학적 고양과 신앙에 바탕을 둔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대구
4회	한계 이승희와 국채보상운동
5회	성주군 지역 문화답사 자료
6회	백산 우재룡의 항일독립 무력투쟁
7회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의 독립운동
8회	대구의 3.1운동
9회	현장답사
10회	파리장서운동
11회	이육사, 이상정, 이상화의 항일 독립운동
12회	대구인의 항일 의열투쟁
13회	대구의 대중운동과 민족협동전선운동
14회	대구의 여성독립운동
15회	상해 임시 정부에서 활동한 대구인

2021년, 기념사업회는 “Citizen Oblige(시민의 사회적 책임)를 실천한 인물”을 주제로,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선각자들의 생애와 그 역사적 의미를 다룬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국난의 위기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구현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한 인물들의 사례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총 4개월 동안 강의 13회와 현장답사 1회로 구성되었으며, 강사진은 국채보상운동 및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15] 2021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회차	주제
1회	구례 윤조루와 류이주
2회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사상
3회	나눔과 실천의 경주최부자: 부의 형성과 회사
4회	이희영 일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5회	다산 정약용
6회	서상돈
7회	최재형의 인생향로와 항일역정
8회	현장답사
9회	백산 안희제의 독립운동 여정과 현실인식
10회	현장에서 바라본 안중근의사 유적과 추모: 뤼순과 하얼빈을 중심으로
11회	김만덕
12회	파락호 가면을 쓴 독립운동가 김용환
13회	삼성 이건의 회장의 나눔
14회	간송 전형필, 한국의 미를 지키다

2022년, 기념사업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과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세계유산의 이해”라는 큰 주제 아래,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의 형성 과정, 의연사례,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유가사상의 이해와 서원의 성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프로그램은 총 3개월 동안 강의 11회로 구성되었으며, 강사진은 국채보상운동과 한국의 서원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 구성되었다.

[표 16] 2022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회차	주제
1회	경상도의 국채보상운동
2회	경기도의 국채보상운동
3회	충청도의 국채보상운동
4회	국채보상운동 의연사례 분석
5회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
6회	유가경제사상의 이해
7회	한국에서의 서원의 발생과 재지 사족의 형성
8회	유가경전의 이해
9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1
10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2
11회	九曲에 대하여

2023년, 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 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구한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의 계층별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와 주요 참여인물, 참여배경, 역사적 의의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3개월 동안 강의 10회와 현장답사 1회로 이루어졌으며, 강사진은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17] 2023년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학습내용

회차	주제
1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천주교도
2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불교도
3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관료와 군인
4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부인
5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아동 및 학생
6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상인 및 보부상
7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재외동포
8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최하층민 계층
9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유림들
10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기생
11회	시민아카데미 현장답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홈페이지와 강의자료,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나눔과 책임 시민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2020년 개설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그 정신 및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나눔과 책임’ 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 주제는 매년 다른 연구 주제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며, 프로그램은 3~4달 동안 11~15회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사업회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민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술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f). 또한,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eBook 서비스를 통해 시민아카데미 강의자료를 편집하여 국채보상운동연구총서로 출판하고, 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아카데미의 세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관에서도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록물의 활용과 구체적인 연계 수준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민교육 강의자료는 원문 해석본을 시각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역사적 사건과 맥락을 소개하는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다. 기록물이 시민성 주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활용 범위도 제한적이었다([그림 17] 참조).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내용분석을 통해,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에 맞추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범주화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채일천삼백만원보상취지

삼가 아됩니다. 대저 신화와 백성 된 자 충성에 따르고 의를 숭상하면 그 나라가 흥하고 그 백성이 편안하나 충성하지 않고 의가 없으면 곧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금 역사상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구주(歐洲) 중 무강한 자와 멸망하게 된 자 또한 흥과 의를 행하고 숭상하는 여하에 연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역대의 옛일과 구주의 먼 곳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동양의 가까운 이웃의 일로 더구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곧 일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 청국 러시아와 개전할 때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긴 것은 병사(兵士)에 감사대(敢死隊)가 있어 죽기를 결심하고 혈우육풍(血雨肉風) 속을 낙지(樂地)에 나가는 것 같이 여기며 집에 있는 백성들은 신을 삼고 패물을 팔며 여자들은 지환(指環)을 모아 군비에 보태어서, 마침내 동·서 역사상의 처음 있는 절대의 큰 공을 이루어서 위무(威武)와 영광이 온 세계에 진동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 5천만 민족의 하나하나가 바로 열심 혈성(血誠)으로 충과 의를 떠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흠모 감탄 하여 본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우리 2천만 동포는 지금 백성과 나라가 위급 가난할 때



대구서문의수창사국채지원금수함사무소공함

삼가 아됩니다. 금연(禁煙)하여 빛을 갠을 일로 백성들의 의논이 모두 같아 본회를 음력 금년 정월 초9일에 군(郡)내 북후정 아래에서 크게 개최하고 취지서(趣旨書)를 낭독하니, 회의장에 가득 찬 백성들이 눈물을 뿌리고 가지고 있던 담뱃대를 일제히 떨어뜨리고 앞을 닦아서 의연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회의에 정해진 규정이 부녀와 아동은 의연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았더니, 규중(閭中)의 부녀가 격동되어 부인의 모임을 결성하고 흔쾌히 패물(贖物)을 기부하였으며, 심지어 "절인(乞人), 백정(白丁), 마부(馬夫), 채소장사, 술집아낙, 계집종, 머슴까지도 나라가 있는 뒤에 백성들이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연금을 내었으니, 하늘의 뜻과 사람이 마음이 성하게 생기(生氣)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찌 2천 만 동포가 다시 만든 날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금연회(禁煙會)는 본래 문명국(文明國)의 위생을 위한 한 가지 일이었지만, 우리들의 오늘 금연회는 바로 천 국도 백성들의 위생

[그림 17] 국채보상운동 시민아카데미 강의자료

3.3.2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념사업회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기록물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차 면담은 교수자를 대상으로 서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업무 담당자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면담은 면담 간 편향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앞서 선정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해 반구조화된 형태로 면담지를 구성하고 이를 면담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면담 준비 과정에서는 면담지를 구성하고 적합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념사업회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총 3회의 사전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대면 면담은 2024년 5월 2일,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2인과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교수자 대상 서면 면담의 경우, 연구 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5인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 5월 17일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요청한 후, 같은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지는 3개 영역, 4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표 18] 참조). 주요 질문 내용은 일반사항,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기타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에서는 피면담자의 담당 업무와 업무 경력을 확인하였다.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항목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과 평가로 세분화하였다.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 의견 항목에서는 면담 전에 연구자가 선정한 시민성 주제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적절성을 질문하였다. 아울러, 시민성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의 종류 및 분석 방안에 대한 피면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8]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면담지 구조와 질문 내용

영역	항목	질문 내용
일반사항	피면담자 업무경력	- 담당 업무 - 업무 경력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기획	- 강사 섭외 방법 - 교육 참여자 모집 방법 - 교육 주제 선정 방법 - 주차별 세부 교육 주제 선정 방법 - 학습 목표
	프로그램 평가	- 교육성과 평가 방법 - 기대되는 교육성과 - 향후 운영 계획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의견		- 선정된 시민성과 국채보상운동의 적절성 - 시민성 관련 기록물 선정 및 분석에 대한 의견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지는 4개 영역, 8개 항목, 19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표 19] 참조). 면담지는 일반사항, 시민교육 현황,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 의견에 더하여, 교수자의 기록물 활용 기반 시민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기록물 검색과 활용 방법’ 영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에서는 피면담자의 업무 및 경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교수자의 경우 자문의 신뢰도를 위해 전공과 연구 분야에 대해 질문내용을 추가하였다. 시민교육 현황에서는 강의 기획과 교육 성과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교수자가 실질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자임을 고려하여 강의 운영 관련 질문도 추가로 구성하였다. 교수자는 시민교육에서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주요 당사자이므로, 시민교육을 위한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경험’, ‘기록물 검색’, ‘기록물 활용’ 항목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 의견 항목에서는 앞선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1차로 검증받은 시민성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 있는지를 2차로 검토받았다. 아울러, 시민성과 연관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정보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시민성 주제와 관련된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정보를 보완하였다.

[표 19]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 대상 면담지 구조와 질문 내용

영역	항목	질문 내용
일반사항	피면담자 업무경력	- 연구 분야 - 업무 경력
시민교육 현황	강의 기획	- 학습목표
	강의 운영	- 성인 학습자에 대한 고려사항 -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고려사항
	교육성과	- 기대되는 교육성과 -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
기록물 검색과 활용 방법	디지털 아카이브 경험	-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경험
	기록물 검색	- 기록물 검색 시 사용하는 검색 -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기능
	기록물 활용	- 교수학습 자료 구성 시 기록물 활용 정도 -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 경험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의견		- 선정된 시민성과 국채보상운동의 적절성 - 기록물 분석에 대한 자문

면담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각각 2024년 5월 2일, 그리고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니셜로 표기하였으며, 면담에 참여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2인과 교수자 5인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들은 한국근대사, 한국여성사, 동양근대사, 동북아국제관계사 등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깊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표 20]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구분	연구 참여자	성별	연구 분야 및 담당 업무	업무 담당 경력	근무 기관 성격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	연구 참여자 A	남	한국근대사	30년 이상	연구소
	연구 참여자 B	여	한국여성사		연구소
	연구 참여자 C	남	인문학		대학교
	연구 참여자 D	남	동양근대사, 한국근대사		연구소
	연구 참여자 E	남	한국근대사		연구소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연구 참여자 F	남	교육 프로그램	5년	연구소
	연구 참여자 G	남	기획 및 운영	1년 미만	연구소

1) 시민교육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기획 항목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강사 섭외, 교육 참여자 모집, 교육 주제 선정, 학습 목표 설정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강사 섭외는 기념사업회 부설 나눔과 책임 연구소와 학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 참여자는 지역 언론 보도 자료와 국채보상운동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었으며, 교육 주제 선정 역시 나눔과 책임 연구소와 학술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었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항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제시되었으며, 질문 전에 학습목표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목표란 학습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하여, 이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의 목적과 교육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시민교육의 학습 목표는 ‘지식 습득’, ‘사고 능력 신장’, ‘신체 운동 능력 함양’, ‘태도·가치 및 감정의 변화’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이해주, 2011).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가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태도·가치 및 감정의 변화’를 시민교육의 핵심 학습 목표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동일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해석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식 습득이나 사고 능력 신장도 중요한 학습 목표이지만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와 건전한 시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 태도·가치 및 감정의 변화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었다.” (피면담자 A)

“국채보상운동의 실제 사례를 통해 ‘나눔과 책임’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면담자 B)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확산시키며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피면담자 D)

“지식 습득과 사고 능력 신장을 주요 학습 목표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관, 역사관, 올바른 지역성 함양, 지역학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태도·가치 및 감정의 변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계기록유산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대한 홍보 및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 (피면답자 E, F, G)

이처럼 피면답자 E, F, G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대구’의 지역성과 기록유산으로서 국채보상운동의 홍보, 저변 확대를 강조하고 있었다. 피면답자 A, B, C, D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와 정신(시민성)을 학습자에게 교육하여 가치관의 변화, 지식의 함양 등을 공통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2)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과 내용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으로, 강의 운영 시 교수자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교육 내용 구성 및 진행 시 유의할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시민교육에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피면답자 A)과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피면답자 B, C, D, E)이 제시되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는 새로운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교육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피면답자 A)

“최근에는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수준과 범위, 교육 방식을 수강자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강의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피면답자 B, C, D)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자유롭게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한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피면답자 E)

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내용으로 국채보상운동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였다(피면담자 A, B, D). 이를 위하여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피면담자 E).

“파편적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사건의 배경과 흐름을 설명하며, 일련의 역사적인 상황과 비교 검토하며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피면담자 A)

“국채보상운동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면담자 B, D)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 학습자들은 국채보상운동, 대구독립운동사,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학습 요구와 전문성이 높았다. 이를 고려하여 철저한 자료조사와 사전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피면담자 E)

3) 시민교육 프로그램 성과와 개선방향

프로그램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기대되는 교육 성과와 향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육 성과란 학습 목표를 구체적인 성과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실제 교육으로 담당자와 교수자가 기대하는 교육 성과와 학습 목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교수자들은 시민교육의 주요 주제인 애국심, 사명감, 자긍심 그리고 나눔과 책임 정신을 핵심적인 교육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대를 교육 성과의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었다.

“대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더불어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가 대구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또한, 시민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피면담자 A, D, E)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계층을 통해 ‘나눔과 책임’ 정신을 실천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피면담자 B)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인지 확대, 세계기록유산인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교육 성과로 기대한다.” (피면담자 C, F, G)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가 생각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피면담자 B)과 수강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의 개설 및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피면담자 C, D)이 언급되었다.

“여성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로 알리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피면담자 B)

“다양한 수강자 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강의 진행을 위해 참여자 사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피면담자 C)

“학습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강의 위주가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면담자 D)

이를 통해 교수자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성인 학습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강의 구성 방식과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응답(피면담자 A, E, F, G)도 확인되었다.

“현재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대구와 인근 지역 시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튜브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피면담자 A)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여 한국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피면답자 E)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대구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국채보상운동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피면답자 F, G)

4) 시민교육을 위한 기록물 검색과 활용 현황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사용 경험과 주로 사용하는 검색 기능, 추가로 필요한 검색 기능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모든 교수자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저서와 논문 작성 등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수자들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여러 검색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특히 ‘형태’와 ‘원본소장처’ 검색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경우, 고문서가 많아 일부 원문이 희미하여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본소장처’별 검색 기능이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브 검색’, ‘의연금 검색’, ‘전문 검색’ 중 교수자들은 ‘전문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 검색’이 취지서나 발문과 같은 기록물을 통해 당시 시대상이나 정세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의연금 검색’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지역별 참여 분위기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기능의 요구사항을 질문하였다. 교수자는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이므로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검색할 때, 도 단위, 군 단위 등 세분화된 지역별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검색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기록물을 형태로 검색할 때 더 세분화된 조건 설정과 월 단위로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기록물 활용 문항에서는 교수자가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할 때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교수자 대부분은 실물자료를 PPT로 제시하거나 디지털 아카이브 통해 기록물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시각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eBook 검색의 자료집을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원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기록물의 지역적인 특징 등을 비교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경험 관련 문항에서는 ‘1907 KOREA’, ‘eBook검색’, ‘콘텐츠 보기’ 등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교수자 중 대부분은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eBook 검색을 통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총서’를 활용하여 시민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Ⅵ.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

4.1 시민성 주제 선정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키워드 범주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동아시아 근대 형성과정에서 국민적 책임의식과 평화 사상의 전개 과정을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세계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 영역과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p.15, [표 7] 참조)를 기반으로,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와 디지털 아카이브 eBook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 사전’, ‘국채보상운동 용어사전’, ‘국채보상운동 지역사 연구와 의연사례 연구’ 등 연구총서와 자료집을 참고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민성 주제와 국채보상운동의 적합성, 시민성과 관련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기록물 분석 시 유용한 참고문헌에 대해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는 기념사업회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물 검색도구인 시소러스와 전거데이터를 참고하여 기록물의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키워드는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성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4.1.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내용분석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시민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 있는 시민성 주제와 해당 시민성 주제의 내용을 가진 기록물을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기록물 내용분석을 위해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와 전거데이터,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민성 주제에 맞는 국채보상운동 키

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는 시민성 주제에 맞춰 범주화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였다.

시소러스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약 4,000여건의 기록물과 국채보상운동 관련 논문, 단행본 등에 출현한 단어를 언어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표준화 및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0). 전거데이터는 기념사업회가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국채보상운동 인물·단체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개발하였다(한상은, 도슬기, 2024).

국채보상운동은 운동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개인의 일상과 행위가 역사로 기록되며, 다양한 사건과 단체, 인물 관계가 얽혀있다. 기록물 내용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물의 경우 이력, 활동분야, 성격, 국채보상운동 참여 역할 등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일반주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인물이 누구인지,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자, 구성원이 누구이며 국채보상운동의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활동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시소러스와 전거데이터 파일의 기술내용(Descripton)을 참고하여 해당 단체와 인물이 국채보상운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표 21] 참조).

추가적으로 시소러스와 전거데이터 파일은 각 셀에 대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번호”가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국채보상번호를 통해 실제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된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다. [표 21]은 내용분석을 거쳐 추출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키워드 수집 예시이며, 추출된 202건의 키워드에 대하여 전거데이터와 국채보상운동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동음이의어, 동의어 등 용어 정리 과정을 거쳤다.

[표 21] 국채보상운동 내용분석 키워드 수집 예시

국채보상운동 내용분석 키워드 예시		
감반	보국회	인력거꾼
감찬	보상의무금	인천항노동회
강상호	보성관	인천항미상회사
결인	보성학교	일본유학생총회
경남부인의무회	보흥학교	일신학교
경남부인회	부산항상무회	임명학교
경성내각수금소	부산항좌천리감선의연부인회	임치정
경성부인회	부용	전국대표인회
경성신보	부인감찬회	전대학교
경향신문	부인애국회	전라남북도상채의무회
고령고령금연상채회	부인의무회	절연
고정주	부인의성회	절용
공립협회	부인회	절용동맹회
광문사	북미대한인대동보국회중앙회	정읍의연소
광주염곡숙사	북미한인대동보국회	제주부인의성회
국미적성회	분남학교	종현천주당
국채보상금처리회	삼도리부인회사	좌천리부인회
군산항성중앙의무사	상동청년학원사무소	죄수
권도용	상무회의소	중동야학교
권동진	상업회의소	지연
금연	상제	진주부인애국회
금연회사설립	상주의무소	천도교
금주	상채회	천주교
금주단연회	상하이신문	철원군공립보통학교
기독교청년회	상해한자신문	첩
기부	샌프란시스코대동보국회	청년학원
기생	서경록	청송군금연상채회
김광제	서도의성회	청송금연상채회
김교창	서우학회	청송부면상채회
김봉문	선파보국회	청송부면상채회
김상익	성명학교	청평논가
김서창	성의학당	코리아데일리뉴스
김영옥	성주상채의무소	태극학회
김용익	소학교생도	태복사
김윤오	수진보성학교	태안안민도민의소

국채보상운동 내용분석 키워드 예시

김창숙	신흥사	통상회
나무꾼	안민애국	특별총회
노비	안악공립학교	패물폐지
노스차이나데일리	안중근	패물폐지부인회
노파	애국열성	평의원
단연	앵무	평의회
단연동맹	야소교	하등사회
단연동맹회	양규의숙	학도
단연상채회	여자교육회	한남보성학교
단연의무회	연출	한북홍학회
단연적금	염곡숙사	한성신문사
단주	영국부영사	한성한어학교
대구국채담보회	영선사	한양단연동맹회
대구국채보상부인회	예수교	한양학교
대구서문시장	오성학교	한인공립협회
대동광문회	우신학교	함경남도흥인회
대동보	원산의연모집	함경남북도총회
대동보국회	유동열	해서동창회
대동보사	유학생총회	해조신문
대동회사	윤용렬	향회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윤희정	협성학교
대한광문사	의연	협성회
대한광문회	의조소	호남학회
대한구락	의창학교	호서협성회
대한매일신보	의학교	홍명학교
대한매일신보사	이상재	화양의숙
대한자강회	이승희	화적당
도독	이은	황성신문
동아개진교육회	이일정	황성신보
만세보	이정재	황현
무당	이준	홍사단
문회	이필상	
백정	이희	

4.1.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선정과 검토

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1차 선정과 검토

(1) 1차 선정

시민성 주제는 2.1.2 항에서 도출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표 7] 참조)와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 및 ‘국채보상운동 키워드 사전’, ‘국채보상운동 용어사전’, ‘국채보상운동 지역사 연구와 의연사례 연구’ 등 연구총서와 자료집을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한 시민성 주제와 핵심 키워드는 [표 22]와 같다.

[표 22]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안(유네스코, 2015)에서 제시한 영역별 학습 성과, 학습자 특성, 학습주제 등을 고려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국가의식은 애국심, 충성심 등을 의미하며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체계와 구조, 이슈를 학습하는 인지적 영역에 해당된다. 평등과 존중은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를 공유하며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에 대해 학습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해당된다. 시민활동과 준법(규범준수)은 실천적 행동과 책임감을 학습하는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2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1차 선정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안*		
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 인지적 영역	국가의식	• 애국심, 충성심, 올바른 국가관
• 사회·정서적 영역	평등	• 기회 균등, 공정성·공평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
	존중	• 배려, 인권 존중, 공감
• 행동적 영역	시민활동	•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 나눔, 봉사
	준법(규범준수)	• 책임감, 의무감, 준법정신, 권위 존중, 공적 의무, 사회적 책임, 사회정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내용만 발췌함

(2) 1차 선정에 대한 검토 의견

연구자가 1차로 범주화한 시민성 주제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영역별로 구분한 시민성 주제를 제시하고 그 적절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시민성 주제와 관련된 추가 기록물이 있는지, 기록물 분석 시 참고할 참고문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모든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선정된 시민성 주제와 국채보상운동의 적절성에 대해 “시의성을 가진 주제로 의미가 있으며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의 경우 시민적 책임의식, 인권 신장, 참여의식, 공동체 연대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선정된 시민성 주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피면담자 F)

피면담자 F는 선정된 시민성과 관련된 기록물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평등 및 존중이라는 시민성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하였다.

“당시 취지서에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전국적 시민운동을 통해 모두가 똑같은 국민이라는 의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초기에 여성들이 참여한 취지서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름이 아닌 ‘00의 처’, ‘00의 부인’등 으로 표기되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평등과 존중’과 같은 시민성 주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국채보상운동은 중앙기구를 통해 진행된 운동이 아니라 지역마다 점조직으로 단체를 형성하고 의연금을 모금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취지서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참여 목적 및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당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면담자 F)

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2차 선정과 검토

(1) 2차 선정

면담을 통해 얻은 전문가의 1차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성 주제의 일반적 정의와 핵심 키워드를 수정·보완하였다. 국채보상운동 지역사 연구와 의연사례 연구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을 추가로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은 시민성과 연관된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핵심 키워드는 인물, 단체 지명으로 구분하였다. 2차로 선정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와 핵심 키워드, 그리고 추가된 관련 기록물 예시는 교수자들의 서면 면담을 통해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를 받았다([표 23] 참조).

[표 23]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2차 선정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1차 선정([표 22] 참조)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성 주제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주제별 핵심 키워드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0), 전거데이터(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3), 국채보상운동 의연사례 연구 등 기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을 배경 정보와 핵심 키워드(인물, 단체, 지명)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물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 23]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2차 선정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안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		관련 기록물 예시
주제	일반적 정의(포괄적)	핵심 키워드	배경	핵심 키워드 (인물, 단체, 지명)	
시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회 또는 정부의 업무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 • 지역사회의 개선, 공동의 목표와 가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일본과 미국 등 해외교민사회에서도 참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김광재, 서상돈, 이승희, 이현주, 신만우, 고정주 등 • 단체: 광문사, 대동광문회, 수창사, 국채보상기성회 등 • 지명: 대구, 고령, 청송, 경상도, 전라도, 샌프란시스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1,300만 원 보상취지서 • 청송군 국채보상회 사통 및 취지서 •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 국채보상 취지서
국가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대한 가치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심, 충성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권 상실의 위기에서 실력양성을 위한 애국 계몽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안중근, 이준, 양기탁, 베델 등 • 단체: 대한자강회, 대한매일신문사, 서우학회, 한북홍학회 등 • 행위: 애국, 충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응칠 제5차 진술내용 •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취지문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안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		관련 기록물 예시
주제	일반적 정의(포괄적)	핵심 키워드	배경	핵심 키워드 (인물, 단체, 지명)	
준법 (규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의무감,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며,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사회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최현식, 이증구, 김윤란, 정규옥, 김정희, 서상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씨 문중의 의연금 출연 • 두 문중의 특별한 의연
평등과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상태이며, 존중은 타인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인권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조선사회는 엄격한 가부장제와 봉건적 사회였음에도 여성과 가난한 하층민, 천민 계층 모두가 국민으로 인식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 이는 국채보상운동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부용, 앵무, 서주원, 김일당, 김석자, 박회당 등 • 단체: 국채보상탈환회, 부인회, 감찬회 애국상채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일동패물 폐지부인회 국채보상취지서 • 부인들의 의연금 납부

(2) 2차 선정에 대한 검토 의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시민성 주제 2차 선정내용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 면담을 통해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교수자들의 의견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국채보상운동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차관에 대한 공세 문제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시대 열강의 경제적인 침략은 무력에 의한 식민지배에 버금가는 억압임을 자각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적 가치인 ‘나눔과 책임’ 정신을 나타내는 주제면 좋을 것 같다.” (피면담자 A)

“국채보상운동은 여성과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한 전국민적 운동이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나눔과 책임’ 정신을 현대인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피면담자 B)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언론과 계몽학회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전국민과 해외동포의 참여 등 국민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계층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정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의연활동에서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지서 작성과 반포를 통한 당시 사대부와 신지식인의 국채보상운동 활동 참여와 애국계몽학회 등 다양한 집단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은 애국계몽운동을 넘어 다양한 결사와 집회를 통해 확산된 대중운동이자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의 정치적 지향점으로서 의의도 확인할 수 있다.” (피면담자 D)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전개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피면담자 E)

위의 피면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표 23]에서 제시한 시민성 주제에 대한 범주를 다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활동, 국가의식, 준법(규범

준수), 평등과 존중으로 제시한 주제영역을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나누어 시민성 주제를 세분화하였다. 피면담자 B와 D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통해 ‘공동체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여성들의 의연활동을 통한 ‘여성 인권신장’을 제시하였다. 피면담자 D는 당시 사대부와 신지식인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를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한매일신보와 각 신문 등 국채보상운동에서 언론의 역할과 애국계몽학회의 역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여 근대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며, 국채보상운동을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정치적 지향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면담자 E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된 이후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외에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의 의미를 보여주며, 국가를 넘어 세계차원에서의 참여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면담자들은 기존에 선정된 시민성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시민성 주제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피면담자 모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중 ‘취지서’ 유형의 기록물의 중요성을 표명하며,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취지서나 발문 등은 당대인의 정세관이나 현실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피면담자 A, D)

3)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범주화

(1) 3차 선정

면담을 통해 교수자로부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시민성 주제 선정에 대한 2차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범주를 세분화하고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계층화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표 24]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를 범주화한 결과를 나타내며, 시민성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상위 범주로, 상위 범주에 기반한 국채보상운동 관련 활동을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특히 하위 범주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신장’을 ‘여성’과 ‘하층민’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시민성 주제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24] 참조).

[표 24]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범주화

시민성 주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시민활동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의 금연운동, 의연금 모금 활동
		해외교민사회의 의연활동
	공동체 연대	향촌사회의 의연활동
국가의식	애국심	애국계몽활동
		독립운동활동
준법 (규범준수)	사회적 책임	황실의 의연활동
		양반, 사대부의 의연활동
평등과 존중	소수자의 인권신장	여성의 의연활동
		하층민의 의연활동

(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범주화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보완

본 연구는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제안한 시민성 주제와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 범주화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자문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와 보완을 통해 시민성 주제 및 상·하위 범주의 적절성을 검토받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키워드 범주화 결과를 보완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영역(p.14, [표 5] 참조)을 참고하여 [표 24]에 제시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의 범주화, 주제영역, 상·하위 범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시민성 주제 영역의 정의, 학습 성과, 학습주제를 기반으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인지적 영역은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를 주제로 하고 있어, ‘시민활동’이라는 시민성 주제를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연대’라는 상위 범주로 선정했다. 국채보상운동은 전개 과정에 있어 정치적, 언론, 경제 연대가 함께 이루어진 운동이다. 이에 따라 하위 범주도 세분화하여 ‘공동체 연대’를 각각 정치적, 언론, 경제 연대로 나누었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 지역적(향촌) 참여, 국내 참여, 국외 참여로 하위 범주를 세분화하였다.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평등’이라는 주제에 따라 ‘평등과 존중’이라는 시민성 주제를 ‘소수자의 인권신장과 평등’과 ‘종교, 문화, 세대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상위 범주로 나누었다. ‘소수자의 인권신장과 평등’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하위 범주로 선정했다. ‘세대, 종교,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상위 범주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나타내기 위해 종교 참여, 학생 참여, 여성 참여 등의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역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행동, 개인

과 집단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주제에 따라 '국가의식'과 '준법(규범 준수)'이라는 시민성 주제를 '평화와 공존을 위한 변화 촉구', '사회윤리적 책임감 있는 활동'이라는 상위 범주로 선정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변화 촉구'는 '계몽활동(교육)'이라는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고 '사회윤리적 책임감 있는 활동'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왕실, 양반, 문중'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와 범주화를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한 키워드와 시민성 주제를 범주화한 결과는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표 25] 참조).

[표 2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범주화

영역	시민성 주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키워드 예시
인지적 영역	시민활동	공동체 연대	정치적 연대	대한자강회, 서도의성회, 서우학회, 의조소, 절용동맹회, 통상회, 국채보상금처리회, 평의원, 평의회, 호서협성회,
			언론 연대	경성신보, 노스차이나데일리,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사, 황성신문, 만세보, 경향신문, 광문사, 대동광문회, 대동보, 대동보사, 상해한자신문, 코리아데일리뉴스, 제국신문, 제국신문사, 해조신문, 청평논가, 황성신문사, 대한구락
			경제 연대	의연, 금연, 금주, 감찬, 단연, 절용, 감반, 절연, 지연, 기부, 상채, 연출, 특연, 상업회의소, 금주단연회, 경성내각수금소, 단연동맹, 단연동맹회, 단연의무회, 단연적금, 단주, 대동회사, 보상의무금, 보성관, 부산항상무회의소, 삼도리부인회사, 상무회의소, 금연상채회, 국채보상기성회, 국채보상단성회, 국채보상동맹회
		지역, 국가, 세계차원에서의 (상호작용)참여	국내 참여	경성내각수금소, 서도의성회, 전국대표인회, 절용동맹회, 통상회, 한북홍학회, 향회
			지역적(향촌) 참여	(청송)부면상채회, 청송금연상채회, (진주)부인애국회, (고령)고령금연상채회, (경남)부인의무회, (제주)부인의성회, (상주)상주의무소, (성주)상채의무소, 단연회성주 (전라남·북도)상채의무회, (대구)서문시장, 단연상채회, 광문사, (태안)안민도민익소, (광주)염곡숙사, (인천)인천항노동회, (정읍)정읍의연소, 함경남북도총회, 해서동정회, (군산)황성중앙의무사, 상업회의소, (함경남도)흥인회, 원산의연모집소, (함경북도) 국채보상혈맹회
			국외 참여	(샌프란시스코)대동보국회, 북미대한인대동보국회중앙회, 한인공립협회, (일본)유학생총회, 태극학회, 한인공립협회, (상해)상해한자신문
사회·정서적 영역	평등과 존중	세대, 종교, 문화의 다양성 존중·정체성	종교	신홍사, 종현천주당, 기독교청년회, 야소교, 예수교, 천도교, 천주교, 서경록

영역	시민성 주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키워드 예시
사회·정서적 영역	평등과 존중	세대, 종교, 문화의 다양성 존중·정체성	학생, 청년 문화	성의학당, 보흥학교, 보성학교, 상동청년학원사무소, 소학교생도, 수진보성학교, 기독교청년회, 안악공립학교, 양규의숙, 염곡숙사, 오성학교, 유학생총회, 의창학교, 청년학원, 학도, 한양단연동맹회, 한양학교, 한남보성학교, 협성회
			여성 참여	패물폐지부인회, 패물폐지,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경남부인회, 경성부인회, 국미적성회, 대구국채보상부인회, 부인감찬회, 부산항좌천리감선의연부인회, 부인의무회, 부인의성회
		소수자 인권신장과 평등	하층민	하등사회, 화적당, 걸인, 죄수, 도둑, 인력거꾼, 노파, 나무꾼
			천민	기생, 부용, 앵무, 첩, 백정, 무당, 노비
			여성 인권	부인감찬회, 부인애국회, 부인의무회, 부인의성회, 부인회, 양규의숙, 여자교육회, 좌천리부인회, 청평논가, 패물폐지부인회, 패물폐지,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부산항좌천리감선의연부인회, 애국부인회
		행동적 영역	국가의식	평화와 공존을 위한 변화 촉구 (구국활동)
독립 활동	대동보국회, 공립협회, 대한자강회, 국미적성회, 안민애국, 애국열성, 황성신문, 황성신보, 상해한자신문, 흥사단 강상호, 권도용, 권동진, 김교창, 김봉문, 김운오, 김창숙, 안중근, 유동열, 윤효정, 이상재, 이승희, 이필상, 임치정, 황현			
준법 (규범준수)	사회윤리적 책임감 있는 활동		왕실	이은, 이희, 이정재, 영신사
			양반, 문중	태복사, 향회, 문회, 금연회사설립, 고정주, 김상익, 김서창, 김영육, 김용익, 김종한, 박해명, 심상훈, 오희원, 이규동, 이근중, 이명래, 이소중, 이용직, 이중구, 이항익, 이호림, 조용태, 한응규

4.2 기록물 활용 방안 제안

본 연구는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연관된 시민성 주제를 선정하고,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에게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와 전거데이터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시민성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시민성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시민성 주제에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범주화하였다. 본 절에서는 시민교육에서 기록물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한 키워드 시각화를 제안한다.

네트워크 그래프는 복잡한 데이터나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구로,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키워드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교육 교수학습안 등 교육 콘텐츠 설계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민교육 학습자가 기록물을 검색할 때 시민성 주제와 기록물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기록관의 일반 이용자도 시민성 주제를 통해 기록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 이외에도 시민성 주제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시민교육에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추후 기록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와 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네트워크 그래프 인터페이스는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1907 KOREA’ 지식 그래프를 사례로 활용하였다. 1907 KOREA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다섯 개의 테마를

주제로 역사적 인물, 사건, 기록물, 장소 등의 다양한 지식 요소들의 연관관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시민성 주제는 4개의 주제, 6개의 상위 범주, 16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활동 주제의 공동체 연대 상위 범주의 경제 연대 하위 범주를 사례로 시각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채보상운동 시민성 네트워크 그래프의 첫 화면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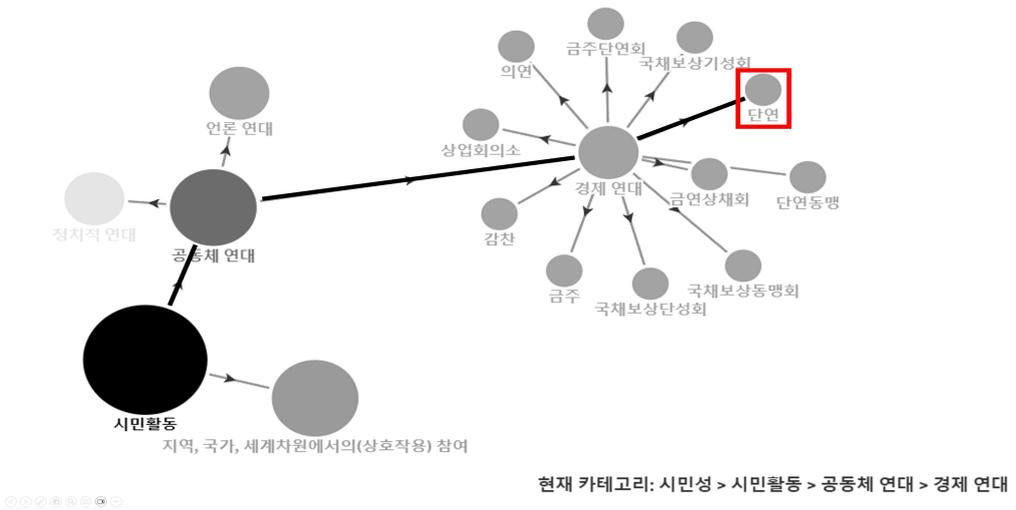
[그림 18] 국채보상운동 시민성 네트워크 그래프 첫 화면(안)

첫 화면에서는 시민활동, 국가의식, 준법(규범준수), 평등과 존중 네 개의 시민성 주제를 보여주며, 각 시민성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 우측 상단 테마에 해당되는 각 시민성 주제로 연결할 수 있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시민성 주제 페이지(안)

국채보상운동 시민성 주제 페이지에서는 해당 시민성에 대한 국채보상운동 배경과 설명을 제공하고, 해당 시민성 주제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다. [그림 19]의 시민성 주제 페이지 우측 상단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민성 주제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그래프와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시민활동 주제에 대한 네트워크 그래프(안)

본 절에서는 시민활동 주제의 공동체 연대 상위 범주에서 경제연대 범주를 사례로 하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제안했다. 시각화된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 시민활동 주제에 대한 상위 범주인 ‘공동체 연대’와 ‘지역, 국가, 세계차원에서의(상호작용) 참여’가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연대’, ‘언론 연대’, ‘경제 연대’가 하위 범주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 연대의 사례처럼 시민성 주제에 범주화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는 ‘감찬’, ‘금주’, ‘단연동맹’ 등과 같이 하위 범주와 연결된다. 연결된 ‘단연’ 키워드를 클릭하게 되면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단연’ 키워드와 연결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번호로 기록물이 검색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그림 21] 참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된 기록물은 해당 시민성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므로 ‘아카이브 상세보기’에서 ‘시민성’이라는 속성을 추가하여 해당 기록물이 어떠한 시민성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기록물은 하나의 시민성 주제만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민성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라면 복수로 시민성 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단연” 키워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번호 검색 결과 예시



[그림 21]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결과 예시(안)

네트워크 그래프는 사용자 정의 필터를 추가하여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면담을 통해 기록물 검색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p.54 참조). 면담 결과, 도·군 단위 지역별 검색, 기록물의 형태별 검색, 기록물 생산 월별 검색 등 보다 세분화된 검색 기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의 지역, 형태(사진, 문서, 신문, 동영상, 기타 자료 등), 생산일자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그래프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한다면, 이용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원하는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 그래프는 시민성 주제의 하위 범주와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연결하여 개체 간 연결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검색 기준을 필터로 설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민교육에 기록물을 활용하면 시민교육 학습자는 시민성 주제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민교육 교수학습안 제작 시 시민성 주제별로 기록물을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기록은 이제 수집과 보존의 역할을 넘어 활용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기록물 활용과 기록정보서비스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기록물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기록물의 교육적 효과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록물 활용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시민성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교육에 효과적인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내용분석을 통해, 시민교육 핵심영역과 교육 주제에 맞추어 기록물을 범주화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교육의 배경과 개념을 파악하고, 시민교육의 핵심 영역과 교육 주제를 종합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외 기록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시민교육에서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와 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채보상운동의 배경과 기록물 보유 현황,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주제와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웹사이트와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및 교수자에게 전화·대면·서면 면담을 통해 시민교육의 운영 현황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넷째,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성 주제와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 전거데이터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내용분석을 통해 국채보상운동 시민성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시민성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성 주제와 키워드를 선정하여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자문을, 시민교육 교수자에게 2차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별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범주화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성 주제는 3개 영역 6개의 상위 범주, 16개의 하위 범주로 재구성하였으며, 시민성 주제에 맞추어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다시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로, 시민교육을 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 방안으로 시민성 주제별로 국채보상운동 키워드를 범주화하고, 네트워크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성 주제별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민성 주제 간의 관계와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시민성 주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시민교육 현장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시민성 주제 선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전문가 검토와 함께 실제 시민교육에 이를 적용하고, 그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과과정 외의 시민교육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물 활용 방안은 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안 제작이나 시민성 주제를 기반으로 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검색 등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시민교육 현장에서 기록물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주연, 남연화, 노형관, 김용. (2015).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9-54.
- 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a). 『국채보상운동 용어사전』. 대구: 그린애드.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b). 『국채보상운동 의연사례』. 서울: 도서출판 선인.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c). 『국채보상운동 인물사』. 서울: 도서출판 선인.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d). 『국채보상운동 주요 키워드 사전』. 대구: 그린애드.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e). 『국채보상운동 지역사 연구와 의연사례 연구』. 대구: 그린애드.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f).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보: 천둥소리』, 51. 대구: 밝은사람들.
- 금재은. (2016). “기록정보 리터러시(Archival Literacy)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건, 김태영, 배삼열, 이은진, 김용. (2013).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중지능 이론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99-125.
- 김경남. (2022).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수집현황과 기술규칙

- 제안. 『기록학연구』, 71, 91-130.
- 김솔.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 김지옥. (2017). 유네스코로 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기록인』, 41, 69-77.
- 김태훈. (2017).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록관 교육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8).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사례유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8-43.
- 도슬기, 박희진. (2023).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위키데이터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2), 95-115.
- 박경희.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의 연구경향 비교. 『교육문화연구』, 25(6), 29-49.
- 박승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인문 콘텐츠 연구. 『대구경북연구』, 19(3), 129-147.
- 박상옥. (2018).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과 가능성 탐색. 『NGO연구』, 13(3), 1-36.
- 배나윤, 이수현, 오효정. (2023). 기록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초등 기록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8, 251-283.
- 백은순, 박형민. (201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다문화교육포럼』, 203-215.
- 설규주. (2021). 코로나 시대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함의. 『열린교육연구』, 29(4), 25-44.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3, 10-19.
- 송미애, 이지원. (2023).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도서관협력수업 설계: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4), 47-71.
- 심갑용, 임지훈, 박종옥, 송나라, 장효정, 김용. (2015).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교육서비스 모형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127-155.
- 오혜재. (2019).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비교·분석 및 교사 인식·실천 현황 연구: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서울: 디자인 프리즘.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 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디자인 프리즘.
- 유혜영, 김남순, 박환보. (2017).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9(4), 3-33.
- 이관춘. (2011). 『호모 키비쿠스』, 서울: 학지사.
- 이규현. (2017). “도시형 마을공동체의 기록교육 활성화 방안”.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도순. (2023).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기록교육 연구: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6, 201-246.
- 이병준, 김태준, 송진휘, 박응희. (2008).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모형 개발연구』.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은미, 진성미. (2014).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미: 지역사회 기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95-221.
- 이숙. (2016). “초등학생의 기록교육 방안: 기록습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주. (2011). 『시민교육현장지침서 제2부: 시민교육의 의미와 방법』. 의

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준호. (2011).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혜, 이숙향. (202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40(1), 147-173.

한상은, 도슬기. (2024).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인/단체명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와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1), 509-536.

허영선. (2020). “중학교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국기록관리학회. (2024). 『기록관리의 세계: 이론에서 실천까지』. 파주: 한울아카데미.

2. 웹사이트

4.16 기억저장소. (2024.11.31.). URL: <<http://www.416memory.org/>>

5.18 기념재단. (2024.11.31.). URL: <<https://www.518.org/base/main/view>>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1.31.). URL: <<https://www.law.go.kr/>>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4.11.31.). URL: <<http://www.gukchae-archives.org/gp/#intro>>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2024.11.31.). URL: <<https://www.unescoicdh.org/home/main.php>>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4.11.31.). URL: <<https://www.elis.go.kr/>>

Civics for All of US. (2024.11.31.). URL: <<https://civics.archives.gov/>>

National Centre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2024.11.31.). URL: <<https://nctr.ca/>>

부 록

〈부록 1〉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면담지 구조와 질문 내용

영역	구분	질문 내용
응답자 기초 자료	피면담자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기관에서 귀하의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2. 시민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민 교육 프로 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 아카데미 강사 섭외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2. 시민 아카데미 교육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3. 시민 아카데미 교육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4. 시민 아카데미 주차별 세부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5.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민 아카데미의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까?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의 학습 목표를 1.지식 습득, 2.사고 능력 신장, 3. 신체 운동 능력 함양, 4. 태도·가치 및 감정의 변화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의 시민 아카데미의 학습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외 다른 학습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프로그램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 아카데미 진행 후 교육성과에 대해 평가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2. 귀하께서 바라는 시민 아카데미 교육성과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 향후 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역	구분	질문 내용
기록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의견		<p>Q. '시민성'이란? 본 면담지에서 사용하는 시민성이란, '세계시민교육'과 '민주 시민교육' 등 시민교육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태도, 의식 및 자질을 의미합니다.</p> <p>1.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성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표 1, 2] 참조). 이 중에서 국채보상운동 시민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주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거나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이 외에도 국채보상운동 시민 아카데미 주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p> <p>2.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시민성의 세부 주제와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p>

[표 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1차 선정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안*		
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 인지적 영역	국가의식	• 애국심, 충성심, 올바른 국가관
• 사회·정서적 영역	평등	• 기회 균등, 공정성·공평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
	존중	• 배려, 인권 존중, 공감
• 행동적 영역	시민활동	•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 나눔, 봉사
	준법(규범준수)	• 책임감, 의무감, 준법정신, 권위 존중, 공적 의무, 사회적 책임, 사회정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내용만 발췌함

[표 2]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연구			
			Kniep (1987)	이병준 (2008)	OXFAM (2015)	유네스코 (2015)
인지적 영역	미디어 역량	비판적 모니터링, 미디어 문해력, 엑세스		○		○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적 합리성, 의사사통, 비판 능력, 갈등 조정 능력, 타인의 의견 경청, 자율적 사고, 토론 능력		○	○	○
	세계 시민의식	통합적 담론, 지속 가능 발전 역량	○	○	○	○
	국가의식	애국심, 충성심, 올바른 국가관		○		
	역사의식	정체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 역사의식		○		
사회· 정서적 영역	다원주의	다양성·차이 인정, 어울림·조화	○	○	○	○
	관용	이해심, 용서		○		○
	다문화 역량	공존, 다문화 존중	○	○	○	○
	도덕성, 양심	정의감, 투명성, 도덕성, 정직성		○		○
	권리의식	권리 인식, 권리주장, 권리 존중		○	○	○
	신뢰감	공공성, 공익성, 상호 신뢰		○		○
	평등	기회 균등, 공정성·공평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		○	○	○
	존중	배려, 인권 존중, 공감		○	○	○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연구			
			Kniep (1987)	이병준 (2008)	OXFAM (2015)	유네스코 (2015)
행동적 영역	정치적 활동	투표·선거 참여, 투쟁, 정치 참여, 정치의식, 저항정신, 사회적 관심, NGO 활동		○		○
	시민활동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 나눔, 봉사	○	○		○
	준법 (규범준수)	책임감, 의무감, 준법정신, 권위 존중, 공적 의무, 사회적 책임, 사회정의		○		○

〈부록 2〉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수자 면담지 구조와 질문 내용

1. 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프로그램 면담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진입니다.

본 면담지는 석사학위 논문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활용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민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서면으로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신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면담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지도교수: 박희진
연구자: 김현진

I. 일반사항

1. 귀하의 전공과 연구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과 담당 업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3. 귀하의 업무 담당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Ⅱ. 시민교육 현황

1. 강의 기획

1)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민 아카데미의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까?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의 학습 목표를 1. 지식 습득, 2. 사고 능력 신장, 3. 신체 운동 능력 함양, 4. 태도·가치 및 감정의 변화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의 시민 아카데미의 학습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외 다른 학습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시오.)

2. 강의 운영

1) 기념사업회의 시민 아카데미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민 아카데미 진행 시 성인 학습자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2) 귀하께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거나 진행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교육 성과

1) 귀하께서 기대하시는 시민 아카데미의 교육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2) 귀하께서 시민 아카데미 교수자의 입장에서 향후 시민 아카데미를 위한 고견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Ⅲ. 기록물 검색과 활용 방법

1. 디지털 아카이브 경험

1-1) 귀하께서는 기념사업회에서 구축한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2) 경험이 없으시다면 추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 기록물 검색

1)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물 검색 시 **‘형태, 유형, 생산연도, 원본소장처’**별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검색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2-1)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원문 검색, 의연금 검색, 기록물 검색’**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중복 응답 가능.)

2-2) 사용 경험이 없다면, 어떤 기능이 검색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응답 가능.)

3) 이 외에,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검색하실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3. 기록물 활용

1) 귀하께서는 시민 아카데미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하실 때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활용하십니까? 활용하실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에는 실물자료, 시각, 청각, 동영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2)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이 **‘1907 KOREA, eBook 검색, 콘텐츠 보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으십니까?

2-1) 사용 경험이 있다면,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기록물을 검색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2-2) 사용 경험이 없다면, 어떤 서비스가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기록물을 검색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V. 기록물 활용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타의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시민성이란 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지향하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태도, 의식 및 자질을 의미합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성의 세부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부록의 [표 2]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국채보상운동 시민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거나,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부록의 [표 1]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1-1) 부록의 [표 1]에서 선정한 시민성의 세부 주제가 국채보상운동 시민교육 주제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1-2) 이외에도 국채보상운동 시민 아카데미 주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부록의 [표 2]을 참고하시어 시민성의 세부주제를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부록〉

[표 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2차 선정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안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		관련 기록물 예시
주제	일반적 정의(포괄적)	핵심 키워드	배경	핵심 키워드 (인물, 단체, 지명)	
시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회 또는 정부의 업무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 • 지역사회의 개선, 공동의 목표와 가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일본과 미국 등 해외교민사회에서도 참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김광제, 서상돈, 이승희, 이현주, 신만우, 고정주 등 • 단체: 광문사, 대동광문회, 수창사, 국채보상기성회 등 • 지명: 대구, 고령, 청송, 경상도, 전라도, 샌프란시스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1,300만 원 보상취지서 • 청송군 국채보상회 사통 및 취지서 •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 국채보상 취지서
국가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대한 가치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심, 충성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권 상실의 위기에서 실력양성을 위한 애국 계몽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안중근, 이준, 양기탁, 베델 등 • 단체: 대한자강회, 대한매일신문사, 서우학회, 한북홍학회 등 • 행위: 애국, 충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응칠 제5차 진술내용 •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취지문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안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		관련 기록물 예시
주제	일반적 정의(포괄적)	핵심 키워드	배경	핵심 키워드 (인물, 단체, 지명)	
준법 (규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의무감,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며,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사회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최현식, 이증구, 김윤란, 정규옥, 김정희, 서상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씨 문중의 의연금 출연 • 두 문중의 특별한 의연
평등과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상태이며, 존중은 타인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인권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조선사회는 엄격한 가부장제와 봉건적 사회였음에도 여성과 가난한 하층민, 천민 계층 모두가 국민으로 인식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 이는 국채보상운동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부용, 앵무, 서주원, 김일당, 김석자, 박회당 등 • 단체: 국채보상탈환회, 부인회, 감찬회 애국상채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일동패물 폐지부인회 국채보상취지서 • 부인들의 의연금 납부

[표 2]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시민성 주제 및 키워드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연구			
			Kniep (1987)	이병준 (2008)	OXFAM (2015)	유네스코 (2015)
인지적 영역	미디어 역량	비판적 모니터링, 미디어 문해력, 엑세스		○		○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적 합리성, 의사사통, 비판 능력, 갈등 조정 능력, 타인의 의견 경청, 자율적 사고, 토론 능력		○	○	○
	세계 시민의식	통합적 담론, 지속 가능 발전 역량	○	○	○	○
	국가의식	애국심, 충성심, 올바른 국가관		○		
	역사의식	정체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 역사의식		○		
사회· 정서적 영역	다원주의	다양성·차이 인정, 어울림·조화	○	○	○	○
	관용	이해심, 용서		○		○
	다문화 역량	공존, 다문화 존중	○	○	○	○
	도덕성, 양심	정의감, 투명성, 도덕성, 정직성		○		○
	권리의식	권리 인식, 권리주장, 권리 존중		○	○	○
	신뢰감	공공성, 공익성, 상호 신뢰		○		○
	평등	기회 균등, 공정성·공평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		○	○	○
	존중	배려, 인권 존중, 공감		○	○	○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영역	시민성 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연구			
			Kniep (1987)	이병준 (2008)	OXFAM (2015)	유네스코 (2015)
행동적 영역	정치적 활동	투표·선거 참여, 투쟁, 정치 참여, 정치의식, 저항정신, 사회적 관심, NGO 활동		○		○
	시민활동	지역사회 참여, 협동, 소속감, 공동체의식, 연대, 나눔, 봉사	○	○		○
	준법 (규범준수)	책임감, 의무감, 준법정신, 권위 존중, 공적 의무, 사회적 책임, 사회정의		○		○

※ [표 1]에서 선정한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시민성 주제를 음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주제 이외에도 국제보상운동 기록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표 2]를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for Civic Education

Kim, Hyeon-Ji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raditionally, the key role of archival institutions has been to collect and preserve records, yet the use of archives has been sparse. However, the increased demand for information and the growing interest in record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archived materials.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utilizing archives i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a, demonstrating their effectiveness in the field. However, the use of archives for civic education still suffers from a lack of interest.

This study seeks to propose ways to utilize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and concept of civic education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omprehensively outlining its core areas and topics. Second, this study reviewed the meaning of archives in civic education and the purpose, content, and methods of this field by looking into civic education programs run by archive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rd,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ebsite and other related literature and research material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movement,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evant archives, and the topics and content of civic education on the movement. The current status of and demand for civic education were also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ith civic education program managers and instructors. Fourth,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to select topics and keywords in civic education on the movement. Keywords related to citizenship topics were extracted by dissecting related literature studies,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thesaurus, and historical data. These extracted keywords were then categorized under different citizenship topics based on research literature related to the movement. Fifth, citizenship topics and keywords related to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ere selected, and their appropriateness was assessed through three rounds of consultations with managers and instructors involved in education programs on the movement, as well a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their feedback, the citizenship topics were reorganized into 3 areas, 6 super-categories, and 16 subcategories. The keywords were also categorized under different citizenship topics. Sixth and last, the findings were visualized, and ways to search and use the archives using the citizenship topics and keywords on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ere also recommended.

The study proposed plans to utilize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for civic education, but it is limited in its lack of testing of such plans in actual civic education program settings to verify their effectivenes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pansion of the scope of archive utilization to out-of-school civic education and the proposal of specific plans for archive utilization in civic education. The utilization plans posed in this study can be widely used a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the field of civic education and in developing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to search and access archives on citizenship topics.

Key Words: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citizenship, civic education, archival education program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Memory of the World,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